

성신 강림 대축일

기도서 P. 309

제1독서 (사도 2, 1-11절)

제2독서 (고린전 12, 3-7, 12-13절)

복음 (요한 20, 19-23 절)

숲정이

발행인	범석규
인쇄인	이수현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바벨과 성령

이재후 신부

오순절은 추수의 첫 열매를 하느님께 바치고 축하하는 절기였다(출애굽 23:16). 그러나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으로 새로운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는 성립되었으므로 결국 성신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 된 것이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이다.

문득 이날과 대조되는 바벨의 모습이 생각난다. 바벨과 강림절은 다같이 언어에 관련된 것으로 혼란과 일치의 대조가 된다. "바벨"의 뜻은 혼란이다. 하늘에 달하는 높은 탑을 쌓아 인간이 한곳에 모여 살려다가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언어가 혼합하여 사방으로 흩어진 곳이다.

우리 말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다.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값의 말을 술이 이해하지 못하고, 울의 말이 갑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곧 사상이 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같이 하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 세 사람이 모이면 마음은 넷이 된다"는 격언이 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회는 언제나 혼란이 오기 마련이다. 바벨에 대조되는 성신강림의 특성은 "일치"였다.

바벨이 한 언어에서 많은 언어로 나누어진데 대해, 강림절은 많은 언어가 서로 통하게 되었다. 강림절은 삼인사심(三人四心)이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다고 한다. 그것은 놀라운 일치요, 일치의 미(美)였다. 120명의 일단에는 남녀노소, 유식 무식 등 차이점이 많았으나 한 마음으로 단결되어 기도하는중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동질자의 단일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들의 일치, 풍부하고 다양적이고 아름다운 일치였다. 음악에서 단음보다 합창을 들을때 이자(二者) 일치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하느님의 창조의 위대성은 모든 피조물을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이다. 이 땅의 수억만의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얼굴만 다르게 아니고, 성격과 취미도 모두 다르다. 공자말 소인동이 불화요 군자화이 부동(孔子曰 小人同而不和 君子和而不同)이라, 즉 소인은 같으면서 불화하고 군자는 화합하나 같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합과 일치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할때 절망의 한계가 오는 법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력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남원 천주교회 주임신부)



고구마 파동

1976년 11월부터 시작된 소위「합평 고구마 사건」이 한국 가톨릭 농민회의 1주일이 넘는 단식투쟁을 포함한 꾸준한 노력으로 3백9만원의 피해보상 문제는 일단락을 지었다. 그런데 피해보상 문제가 매듭된 광주 기도회가 끝난뒤, 5월 6일부터 신문지상에 보도되기 시작한 「고구마 사건」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다. 東亞, 中央, 韓國, 朝鮮日報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들만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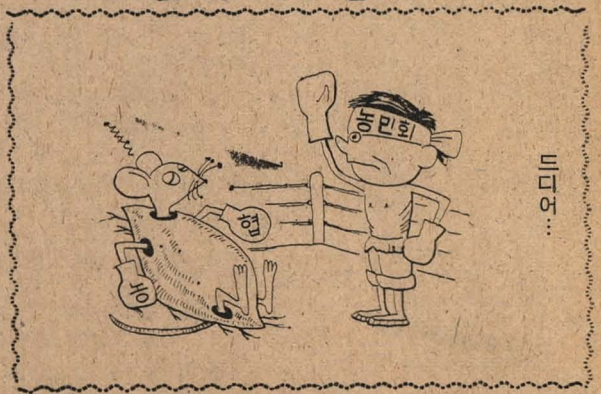
「농협, 고구마 수매자금 80억 유출 감사원, 전남북, 경남북 단위조합 감사 추정회사, 중간상과 짜고 서류조작 202명 해임, 해직 등 659명 무더기 징계 일부 추정회사 35억 탈세도」

한국일보는 「수매 안해 값 폭락으로 생산농가 울러, 전국 13개 추정회사중 11개사가 관련」이란 제목 아래 해설기사를 썼다. 「감사원은 3백명의 감사원 직원과 국제청 직원등 연인원 1만1천여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을 적발했다. 76년에서 77년까지 방출된 고구마 수매자금은 약 4백15억. 그 가운데 전남북, 경남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부정유출로 적발된 것이 80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협이 추정회사와 짜고 고구마 수매자금을 유출한 실제 액수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정상적인 과정은 농협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고구마를 사서 추정회사에 공급하고, 추정회사는 고구마만으로 추정을 만들게 되어 있다...」

또한 전북신문은 "일부 농협직원들은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채 단위조합장을 해임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걱정"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국의 노력으로 사건이 들어나서 다행이나,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요청된다.

숲정이 산책



그디어...

교육현장; 그 비리(非理)와 배반(背反)

- 가르치는 진실이 사라진 어느 체합

지난 5월 2일부터 8일까지는 제26회 교육주간이었다. 대한 교육 연합회는 「정신문화 제발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내걸고 갖가지 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물다섯해가 넘게 주제를 내걸고 교육의 새로운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는 왜 많은 문제점들이 쌓여 있는가? 물론, 세계의 빠른 변천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주어지는 문제점들도 많겠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의면하는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에 「진실을 안가르친다면 그것은 교육도 아닌 것」이고, 「학생들이 교사에게서 진실을 배울 수 없게 하는 교육당국의 어떤 지시도 저절로 무효라 생각」하는 성래운(成來運, 前 연세대 교수, 교육학 전공)교수가 한가람 3호에 발표한 글 가운데 일부를 옮겨 본다.

(前略)

하루는 교사 한 분이 교장실에 들어 섰다. 어린 학생들한테 항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학생이 물라시 묻는 건데 어찌서 안가르쳐 주느냐는 항의를. 선생 아닌 의사도 간호원도, 이따금씩 찾아드는 어머니, 아버지도, 그밖의 어떤 어른도 묻는대로 시원시원 대답하는데, 정작 가르쳐 줘야 할 선생님이 입다물고 말다니 말도 안된다는 항의를. 심지어 어떤 어린이는, 그런 선생은 선생도 아니라는 말까지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넘었나 보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놓고 국론이 양분되다시피 한 무렵의 일이다. 학교는 정치적 현실을 일체 가르치지 말라는 당국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헌법에도 교육관계 법규에도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였다. 그 교사는 그 지시를 따랐던 것이다. 그래서 제 학생이 자꾸만 물건만 정치적 현실에만은 suitable 입을 열지도 않았던 것이다.

교사는 어린이들의 항의를 받고야, 부랴부랴, 그들을 가르쳐준 의사와 간호원들을 만나 보았다. 아나나 다를까, 제멋대로 가르쳤음을 알게 된 것이다. 어린 학생들 물음이라야 별 것이 아니었다. 어찌서 날마다 무장한 경찰관들과 물 든 대학생들이 죽자 살자 싸우고 있나를 물었던 것이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데모만 해대는 그 따위 놈들은 최루탄 쏘고 방망이로 때려 잡아 백번도 옳다”는 이도 있었고, “하라는 지팡이 노릇은 안하고 나라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몽둥이질만 해대는 그 따위 경찰들은 물을 던져 골통을 깨버려 백번도 옳다”는 이도 있었다. 교사는 아연실색할 밖에 없었다. 자기가 안가르친 노릇이 학생들은 남들에게서 이렇게 배운 것을 알고는 일종의 전율(戰慄)마저 느꼈던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교사의 물음에 대답할 차례가 되었다. 나는 그 교사에게 학생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라 했다. 이래서 나는 당국의 지시를 어길 수 밖에 없는 교장이 되고만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제 나라의 정치적 현실을 「나라사랑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부탁하

지 하였다. 그러나 당국의 지시를 어기는 책임은 나 혼자 지는 대신, 나라의 정치적 현실을 교육의 자료로 다루어, 교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어린 학생들에게 선전됐을 경우에는 그 교사가 교단을 떠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학교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충족해 주기로 한 것이다. 나는, 학생들이 교사에게서 진실을 배울 수 없게 하는 교육당국의 어떤 지시도, 저절로 무효라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지시를 따름이 도리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이나 교육법규를 위반하는 셈이라 판단한 것이다. 애타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 되자 어린 학생들은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 함성을 터뜨렸다. 나라사랑의 마음도 눈에 보일만큼 자라나고 있었다. (中略)

당시 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지키라는 정치적 중립이노라고. 교육의 정치적 도구화로 더럽혀질대로 더럽혀진 것이 다름 아닌 교육의 역사이다. 그것 때문에 교육은 교육이 아닌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도 남들도 그랬었다.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자고 세운 것이 학교였다. 그런데 진실을 은폐하게 했거나 거짓을 가르치게 했던 정치권력이 동양에도 저양에도 슬하게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 못하게 하자고 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 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인 것이다. 학교야, 그것을 세운 본래의 뜻대로 학생들에게 진실만 가르치면 그게 바로 중립인 것이다. 여(與)가 진실이면 여를, 야(野)가 진실이면 야를 가르쳐야만 중립인 것이다. 어느 쪽도 거짓이면 어느 쪽도 가르치지 말아야, 그리고는 다른 쪽의 진실을 가르쳐야만 무엇보다도 교육이 될게 아닌가. 진실을 안가르친다면 그것은 교육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가해(加害)일 따름이다. 당시의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당국의 지시를 내 임책하에 어겼고, 교사로서 하여금 제 나라의 정치적 현실을 가르치게 했던 것이다. 학생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일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교사의 기본권이 라 생각했던 것이다. (以下 略)

□설계·김리·허가수속□ 하나님의 성전과 교향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신원 건축 연구소

1 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 센터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교우 여러분의 성원속에 자라온 한국온수는 적은 자본으로 자립하고자 하시는 분을 구합니다. 강경, 함열, 황등, 신태인, 대야, 진안, 장계, 고창, 순창 각 1개소 위와같이 대리점을 증설코저 하오니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② 3032 이리 8629
한 동 압 (모이세)

□ 기도의 해 □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 상 갑(바오로)

아시아 주교회의는,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1978년을 「기도의 해」로 정했다.

사실, 크리스찬인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루가 18장1절) 우리의 스승인 예수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늘 기도하셨다. —“때때로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드리곤 하셨다.”(루가 5장 16절)

기도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한 대화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계획·근심·잘못·즐거움 등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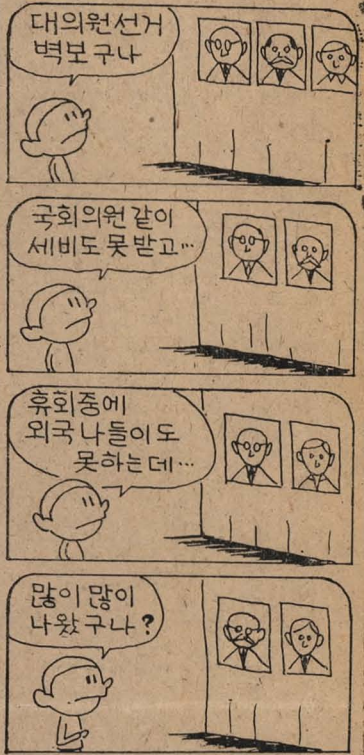
첫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우리는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하고 기도문을 외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기도한다. 비록 내 아들이 공부는 잘 하지 않아도 입시에 합격시켜 주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기 보다는 명명거리는 맛이 좋으니 권세를 주시고, 별로 노력은 안했어도 일확천금하게 해주시고, 절제 없는 생활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주시라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남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내 잘못은 용서해 주시라고 주의 기도를 외워대지나 않았던지?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께서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될 수 있는 일이오니 이 잔을 제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마태오 26장 39절)라고 우리를 가르치셨다.

둘째, 바르게 청한 것은 반드시 얻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끈기있게 기도하자. “의심을 품는 사람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야고보 1장 7절)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명심하자. 의심을 갖는다는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 비록 우리는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루가 11장5-13절) 우리가 간곡히 청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묵상해야 한다.

셋째, 자신의 부족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정신으로 기도하자. 바리새이 처럼 거드름을 피우지 말고 “오, 하나님! 죄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자. (루가 18장10-13)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일은 핑계있는 무덤을 만드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해야 한다. (테살로니카 전서 5장16절)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감히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필립비 4장6-7절)

요십이 (250)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찾집

전주 점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원준(야교버)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할

전주 광고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 5 8 5

◎ 감초당 약국 앞

각종 보일러 시공담당(시공면허30호)

새마을보일러 전북총판

지역대리점모집

중앙설비상사

전화 ③ 5 6 1 4

전주시 금암동 710~11

□각종카텐·응집셋트·의자·철재
책상·목재비품·기타일체(판매 및
수선)

대건공업사

전주시 서노송동 605의 43

(가톨릭센터 앞) 전화 ③7166

장 기 수(다두)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③ 4577, 578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1.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 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 ① 아직도 집안에 폐지저금통이 남아 있는지 찾아봅시다
- ② 받아가신 폐지 저금통은, 빈통으로라도 반드시 본당에 다시 냅시다
- ③ 서학동 본당 248,531원 접수(1인평균 135원, 전년 대비 209%)
- ④ 총 누계 4,426,505원(1인평균 73원, 전년 대비 99%)
- ⑤ 아직 안낸 본당은 속히 내주시고, 전년도 대비 150% 미만 본당은 더욱 두려해 주세요

2. 군옥지구 연합 꾸리아 합동 아치에스 행사(오늘 오후 2시, 월명동성당)

3. 방직거 3회 연수회(20일<토> 오후 2시-21일<일> 오후 4시, 노송동 프란치스코 집에서)

- ① 등록: 20일 오후 1~2시, ② 준비물: 미사도구와 회비 2,000원 지참

4. 레지오 마리에 콘칠리움(국제본부) 사절 메크라드 신부, 전주 교미시움 방문(21일<일>)

- ① 12시: 점심(실로암에서)...각 꾸리아단장 필히 참석 바람, ② 오후 2시: 교미시움 회합(전동에서)

5. 여성 제5차 꾸르실로(6월 3일<토>-6일<화>), 가톨릭 센터, 회비 8,000원)

꾸르실로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본당 신부님과 상의, 5월 20일까지 접수 바람(기일 엄수)

(중앙)

전화 3651 / 3874

주임 신부 서홍복, 보좌 신부 정승영, 사도 회장 이복석

5. 다음주일은 성삼주일: 판공성사 못보신 분 이날까지 보시기 바람

□ 지난주 봉헌금: 134,990원

- 1. 축하합니다, 견진성사 받으신 분들
- 2. 꾸리아 월례회: 14일 오후 2시(강당)
- 3. 저녁미사후 묵주의 기도 있음(성모성월 동안)
- 4. 주일미사후 성당마당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다
- 5. 5월 28일부터 새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사무실에서 판매함) 신, 구약 합본 2,500원, 신약 500원
- 6. 경로잔치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51,815원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복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 1.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주일학교와 신용조합 소풍관계로 연기
- 2. 신우회 월례회: 오늘저녁미사 후에 있음
- 3. 사도회 피정: 17일 오후 8시~18일 오후 2시까지 대상: 사도회 임원과 교문, 구역회장, 공조회장 준비물: 미사도구와 회비지참(숙식 제공)
- 4. 중노 2가 가정방문: 16일과 17일, 2일간
- 5. 중노 1가 반상회: 15일(월)-맨드라미반, 백일홍반, 19일(금)-개나리반, 모란반(저녁 8시~10시까지)

□ 지난주 봉헌금: 65,190원

- 1. 성신강림 대축일-선교주일
- 2. 축영제-10시미사후 환영식
- 3. 사도임원 보강

장사도회장: 박장준(누가), 부회장: 강남준(분도), 장수(세시리아) 선교위원장: 한형주(베드로), 차장: 김한기(안드레아) 선교위원: 한울순(글라리아), 김남(테레사), 전례위원장: 김광수(요안), 차장: 강성식(요안) 전례위원: 박정애(주리아), 강복남(갈라) 봉사위원장: 이정빈(시몬), 차장: 조동근(시몬) 봉사위원: 원정자(요세피나), 김명숙(아네스), 재경위원장: 정만성(누가), 차장: 박형식(다두), 재경위원: 김배숙(알나), 윤성순(수산나) 감사: 오상팔(토마스), 박종갑(발라바), 사무장: 김재열(원신시오) 수고가 많겠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51,735원 애령기금: 8,030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서석기, 사도 회장 유제상

(술집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 1. 축하! 덕진신용조합: 집포 개설 덕진사건판 열 개월식: 15일 오전 10시
- 3. 박종근 신부님 주소: 우편번호 500, 전남 광주시 월산 2동 136-10번지(가톨릭 군인회관)내
- 3. 제대초 봉헌: 장윤옥 데레사 할머니
- 4. 반미사 가정미사는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5. 5월 22일부터~26일까지 평일미사 없음
- 6. 성모의 밤 행사: 매-5월 28일 오후 8시 지참물-초, 묵주, 기도서 봉헌-초, 화분, 꽃, 봉헌시, 기타
- 7. 오늘 신자들의 기도: 유제상, 이범수, 재연희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 김은식, 전갑근, 주영란

□ 지난주 봉헌금: 72,830원

-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 2. 신입 사도회장: 진복동-이강노(요한)
- 3. 예수승천 야외미사 협조수신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 5. 묵주기도: 매일 저녁미사 후 모든신자 참석 바람 (화분 봉헌 바람)

□ 지난주 봉헌금: 89,005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한준, 보좌 신부 이윤석, 사도 회장 유유성

- 1. 본당 야외미사 및 소풍 오늘 9시 30분 성당서 출발 10시 30분 야외미사 장소: 예수병원 서편 동산(근영학교 가는 길) ※ 도시락 지참, 본당 10시, 4시미사 없음 성우회 월례회: 소풍과 합유(야외에서)
- 2. 주일학교 소풍: 오늘 9시 성당에서 배스로 출발 장소: 상관성당
- 3.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 15일(월) 이경희, 16일(화) 임글라라, 17일(수)천진 18일(목) 김정자, 19일(금) 김화식, 20일(토) 김병순, 21일(일) 박광삼
- 4. 오늘 주일학교 1일교장: 최재홍 다음주일: 김성원

- ※ 성모성월: 매일밤 루드르굴 앞 미사(밤 8시)
- 1. 자도회: 10시미사 후 2. 장우회: 저녁미사 후
- 3. 성가정회: 내일(월) 오후 2시
- 4. 견진성사: 다음주일 10시 교리: 매일저녁 접수: 토요일 오후 2시-저녁
- 5. 예비자교리: 주일, 수요일, 금요일
- 6. 유아세례: 2시미사 후
- 7. 성당 좌석(의자) 각자 부담

□ 지난주 봉헌금: 145,790원

(파티마)

전화 7249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 1. 사도회 임원: 교문: 김종순, 정세창, 회장: 채수현 부회장: 유종소, 김화자, 총무: 김용무 선교: 장용근, 전례: 양현홍, 재정: 윤영섭, 봉사: 정진용, 교육: 황희상, 부녀: 장용애, 감사: 이동주
- 2. 주일학교 소풍: 5월 21일
- 3. 예비자 교리: 6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4. 교리교사 회합: 매주(금) 오후 6시
- 5. 구세주미사 모친: P.R 공식미사 후 ※ 가장 긴급한 비품 구비에 뜻있으신 분은 본당 신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주일 첫 봉헌금: 29,695원